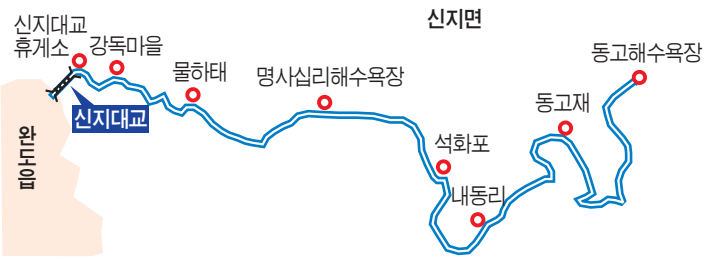


남도이길

<27> 완도 명사십리길 신지대교~ 동고해수욕장

■ 명사십리길



완도 신지도의 풍광을 골고루 체험할 수 있는 명사십리(鳴沙十里)길. 신지대교에서 시작, 바닷바람을 맞으며 코끼리를 닮았다는 상산에 올랐다가 대형 파라솔 역할을 하는 숲숨을 따라 은빛 백사장을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여행객들이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나무데크로 조성된 탐방로를 걷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바람과 함께 걷는 길...가지고 갈 것은 '여유' 하나

남도 들녘을 2시간 넘게 달려야 닿는 완도(莞島)는 섬(島)이 아닌 지 오라다. 지난 1969년 국도 13호선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 40년이 넘었다.

반면, 여기에 속한 유인도만 54개, 무인도가 147개나 되는, 여전히 '섬'이기도 하다. 물과 연결되면서 여행객의 발걸음을 이어주는 편리함보다 섬만이 가진 신비로움마저 갖췄다는 얘기가. 특히 맑은 바다와 하늘, 인근 섬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본격적인 휴가철, 완도 갯길 여행의 묘미다.

남도 갯길 중 완도군이 걷기 좋게 정비한 구간은 ▲ 명사십리길(10km) ▲ 해안길(20km) ▲ 약산동백길(11km) ▲ 상록수길(20km) ▲ 경지종은길(17.5km) ▲ 노을길(8.5km) ▲ 슬로길(42.195km) 등 7개 구간으로, 길이만 130km에 이른다.

'남도 갯길'이라는 이름만 내걸었을 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놓다시피 한 다른 지역에 견주면 완도 갯길은 걷기에 편안하다.

주요 지점에 현 위치, 도착지 등을 적은 남도갯길 안내관을 설치해 길을 '찾아 가자' 하는 불편함도 없는데다, 차도와 분리된 해안 도보길이 많다는 점이 여름 탐방로로 제격이다.

여름 휴가철을 감안해 택한 구간은 명사십리길. 신지면 송곡(松谷)리 강독마을에서 시작해 상산(해발 324m)을 올랐다가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10km 구간이다.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신지대교, 코끼리를 닮았다는 상산(象山), 커다란 화형상의 노학봉(해발 225m) 능선, 수백년 된 해송 300여 그루가 즐비

해안선 따라 한나절 파도소리에 취해 걷는 걸음 절로 느긋

울망줄망 섬들이 발밑에 동동동...그림같은 다도해 한눈에

한 동고마을의 방풍림 등 '신지팔경'을 골고루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이기도 하다. 특히 앞뒤로 막아선 산줄기가 없어 탁 트이고 다도해(多島海) 관문이란 이름에 걸맞게 울망줄망 떠있는 수많은 섬들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섬산행의 독특한 풍광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 죽자고 걷는 게 아니라면 명사십리 해수욕장까지 4~5시간은 잡아야 한다.

기점은 신지대교부터 잡았다. 차량을 주차해놓은 뒤 신지대교 휴게소 뒤편으로 남도갯길 표지판이 설치된 지점부터 걷는 게 좋다. 조금 걸다보면 2005년 신지대교(길이 1100m)가 놓인 뒤 신지면의 관광 역할을 한 강독 마을이 나타나는데, 끝없는 바다가 마을 안 마당으로 들어온 듯 한 느낌이 붙어온다.

강독 마을은 지금도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하는 '갯제'를 지내는 마을 중 하나다. 신지면을 둘러싼 바다는 개펄, 모래, 암반으로 이뤄져 자연산 굴과 고막이 많았고 김, 미역, 톳 양식에 가두리 양식장을 하는 주민들도 많아 한때는 '넉치면'이라고 불렸을 정도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자식들을 먹여살린 주

민들이 많다 보니 '물 밑 용왕님네, 청산, 노화, 고금, 약산... 문어, 낙지는 강독 갯바탕으로 다 오게 해주시오'라며 갯제를 치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정약전(丁若銓)도 조선시대 완도 송곡으로 귀양온 뒤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바다고 만나고 접하는 게 어부들의 고기잡이 생활인 탓에 점차 어중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훗날 흑산도 유배생활을 거치면서 '자산어보'를 저술하는데 계기가 됐다는 얘기가 지역민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다.

강독마을을 지나 예전 물양장 역할을 했던 물하대를 거쳐 상산 정상에 올라 맑은 여름 바람은 청량감이 대단하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피로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발표를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상산 정상에 오르는 게 벅하다면 숲과 바다를 끼고 상산 둘레를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할 수도 있다.

완도군은 이 구간 탐방로를 알리기 위해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클린 마운틴 등산대회'를 열기도 했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조성된 쉼터. 본격적 여름 휴가철이면 100만명이 넘게 몰리면서 빈 자리가 없다.

차분한 등산로를 걷는 게 심심하다 싶을 때면 나타나는 게 명사십리(鳴沙十里) 해수욕장 구간이다. 신지면 주민들이 풍광이 뛰어난 신지 8경(景) 중 으뜸으로 꼽는 해수욕장이다. 폭 150m, 길이 3.8km 규모의 은빛 백사장은 '모래가 파도에 씻겨 우는 소리가 심리에 걸쳐 들린다'고 해 '울모래등'으로도 불린다. 지난 1995년 전국 5대 해수욕장으로 선정됐고 신지대교 건설 이후에는 연간 관광객만 100만이 넘는 지역 최고의 관광지 지로 자리매김했다.

해변길을 따라 적당히 달궈진 해변의 모래가 발바닥을 푸근히 감싸는 느낌을 1시간 넘게 체험하는 게 지루하다면, 백사장 한 칸 1km 가량 숲숨을 따라 이어진 나무데크 산책로를 택하는 것도 좋다. 최근 조성된

'해조류 스카프랜드' 뒷길로 이어지며 파도소리와 숲숨을 걷는 '여유'에 빠져나갈듯한 해변의 북적거림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명사십리 해변을 지나면 굽이 해안 둘레 흰 국화처럼 가득해 붙여진 이름이라는 석화포 선창과 산림이 병풍처럼 둘러싸 조용하고 아늑한 안동네라는 내동(內洞) 마을을 지나면 탐방로의 끝인 동고해수욕장에 이른다. 이 일대는 미개통 구간이 일부 남아 있어 다소 불편한 게 흠이다. 수백년 된 해송 300그루가 방풍림을 이루고 있어 "한여름에도 옷걸이를 여밀 정도로 시원하다"고 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 클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사업이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국민적 이용을 확대하여 관련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준용량(가정용)용량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062-512-1180/ H.P 011-659-7001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초슬립!!

스킬과 맘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장 파괴 50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원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튼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이) 대산프리모 검색

대전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튼상가 2층
대산프리모가발